

전북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현황 소개

한국-독일, 탄소복합재 전문가 기업 참여 트레블링 컨퍼런스 열어... 최신기술 등 양국간 교류강화 나서

한국과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가 기업인 70여명이 참여한 '트레블링 컨퍼런스' 행사가 지난 1일 전주에서 열렸다.

트레블링 컨퍼런스는 전라북도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행사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IGCV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독일 연구원과 기업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연구원들이 차례로 나서 탄소복합재 부품 관련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공법을 이용한 탄소복합재 제조기술에 대하여 발표했고, 독일 탄소가 BMW, 크라우스마페이, 디켄바하, 코베스트로에서는 각 기업들의 최신 개발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었다.

행사 주최측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박규순 박사는 전북의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현황 및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기술개발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동철 원장은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선진기술 등향 파악과 한국 탄소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독일 프라운호퍼 IGCV연구소의 레나토 베제라 박사는 "아시아 탄소시장의 잠재성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공동연구 추진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작년 3월 독일 마이카본(MAI Carbon)과 클러스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LOI를 체결하였고, 올해부터 한-독 탄소산업 클러스터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프라운호퍼



한국과 독일의 탄소복합재 전문가, 기업인 70여명이 참여한 '트레블링 컨퍼런스' 행사가 지난 1일 전주에서 열렸다.

IGCV연구소는 마이카본의 회원사 중 하나이며, 클러스터 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트레블링 컨퍼런스는 독일 선진 연구기관의 국제화를 위하여, 매년 해외를 돌며 자신들의 연구분야를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이

다. 올해는 중국, 한국, 태국을 돌며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컨퍼런스 개최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선정되어 지난 4월 본행사와 관련한 LOI를 체결하였다.

/김민근 기자

한국지엠, 11월 자동차 4만 2543대 판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11월 한 달간 총 4만2,543 대(완성차 기준 - 내수 1만3,499대, 수출 3만2,194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11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연말 성수기에 맞춘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카마로를 제외한 전차종 판매가 증가, 전월 대비 34.9% 증가한 실적으로 시장 반등에 시동을 걸었다.

세브레 크루즈는 지난 한 달간 821대가 판매되며 지난달보다 176.4%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크루즈는 11월부터 높은 실주행 연비와 발군의 주행성능을 선사하는 다젤 모델 출시를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한 바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가솔린 모델과 함께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출시 초기 수준의 시장 반응을 보였다. 주력 제품군의 내수 판매 또한 반등

세로 돌아섰다. 주력 모델인 스파크와 말리부, 트랙스는 지난달 대비 각각 17.9%, 25.0%, 46.1% 신장했으며, 임팔라와 올란도는 동시에 64% 이상 판매량이 늘어나며 실적 회복에 기여했다.

한국지엠 영업, 서비스, 마케팅부문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부사장은 "강력한 연말 고객 사은 프로모션에 대한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위축된 실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12월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판매 촉진 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제품 경쟁 확대를 위한 스마트 시승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제품의 강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의 11월 완성차 수출은 3만2,194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 까지 누적 판매실적은 총 47만9,058대(내수 12만5,252대, 수출 35만3,806대, CKD 제외)이다. /군산=김민근 기자

농협,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 1000만명 돌파

헌법 개정시 농업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개시 한 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농협은 4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이 지난달 1일 시작 후 30일 만인 11월 30일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서명 1000만명 돌파를 추진 동력으로 농업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더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1000만명 서명달성 보고 및 '농업가치 범국민 공감운동'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1000만명 서명 추진경과 보고 ▲전국 각지 서명운동

활동 영상 상영 및 어린이 등장 '꿈을 꾸지 않으면' 공연에 이어 2단계 국민공감 확산 운동'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추진 결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병관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계가 함께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이 30일 만에 달성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1000만명 서명을 발판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은 물론 5000만 전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 스키장 최초 리프트 요금 대폭 인하

무주덕유산리조트, 4시간권 요금 중점적 대폭 인하

국내 스키장 최초로 리프트 요금을 인하하여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 스키장의 17/18 스키 리프트 요금이 지난 주말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정도 빠른 지난달 25일 중급 투키힐 슬로프로 17/18 스키시즌을 개막하고 지난 주말 초급 이스턴과 중급 카백션, 상급 레이더스 하단 슬로프를 추가 오픈, 정상요금에 적용되며 요금이 공개되어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 할인이 아닌 요금 자체를 인소한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복잡했던 리프트 요금 편중 체계를 8시간, 4시간, 2시간권으로 단순화 하였고, 특히 인기가 많은 권종인 4시간권

(반일권)의 요금을 중점적으로 대폭 인하였다.

스키장 최초로 리프트 요금의 시간당 편중화를 적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그렇듯 지금까지는 8시간권(주간권/후야권)의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4시간권(반일권)의 요금을 8시간권의 70%~80%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다.

때문에 대다수의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8시간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4시간권을 이용해도 8시간권과 비슷한 시간당 편중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6/17시즌 8시간권은 시간당 9천5백원, 4시간권은 1만 5천원으로 1.6배가량 차이가 났던 것을, 17/18 시즌에는 8



국내 스키장 최초로 리프트 요금을 인하하여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 스키장의 17/18 스키 리프트 요금이 지난 주말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시간권은 시간당 1만원, 4시간권은 시간당 1만1천원으로 적용하며, 시간당 금액의 편중화를 실현하였

다. 4시간권 6천원~1만8천원, 할인율은 6% ~ 최대 42%까지 인화된 금액에 제휴할인까지 더해져 가격은 더욱 낮아져, 부담 없는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산매각공고

사. 건 2015회합 30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태형

채무자 주식회사 태형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 대상 자산의 표시

물건 번호	부동산 번호	부동산 주소/물건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1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	대	638㎡	㈜태형
	2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1	대	184㎡	
	3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3	대	148㎡	
	4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547-1외 2필지	주택	182.2㎡	
2	1	전북 익산시 무송동 1108 부영아파트 제504동 제1층 제102호	아파트	81.823㎡	㈜태형

※ 물건번호 1, 중 부동산번호 4, 부동산에는 세사의 건물 포함

2. 매각방법 및 일시, 장소 등

가.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나. 매각조건

1)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2)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서 최고가 이상으로 제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1) 입찰마감일, 최저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물건번호	회차(입찰마감일시)	최저입찰가격(원)	%	비고
물건번호 1	1회차 2017. 12. 11. 14:00	138,797,000원	100%	박갑식 객시 독자분 에 한함
	2회차 2017. 12. 11. 15:00	97,157,900원	70%	
	3회차 2017. 12. 11. 16:00	68,010,530원	49%	
물건번호 2	1회차 2017. 12. 11. 14:00	80,000,000원	100%	
	2회차 2017. 12. 11. 15:00	64,000,000원	80%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개찰은 각 회차별 마감시 이후 10분에 실시하며, 회명자는 확인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 ① 입찰서 양식 : 채무자 회사 및 입찰장소에 비치
- ② 입찰서 제출방법 : 관리인의 입찰 장소에 현장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입찰봉투표면에 "(주)태형 매각 입찰서 제출" 이라고 표시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입찰서 제출장소(입찰장소) : 전북 익산시 황곡면 황곡동공단지길 7-17, 3층 주식회사 케이아이 관리인실

라. 입찰의 성립과 낙찰자 결정 등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하고 부동산인입매각이다.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2) 입찰마감 일정시까지 입찰장소에 접수(도착)된 입찰서만 유효하며, 입찰시간 이후에 도착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고 효력이 없음.
- 3)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4) 개찰결과는 낙찰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함.

3. 계약예금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후, 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낙찰이 무효 될 경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함).

나.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찰금액의 10%로 하며, 매매잔금은 낙찰 및 계약제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다. 낙찰자 결정과 매매계약은 전주지방법원 수탁부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요건한정의 정지조건이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별도의 이자 없이 낙찰자에게 반환한다.

4. 입찰서류

- 가. 입찰서 - 별지양식
- 나. 입찰보증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위 매각대상물을 입찰 당시의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 대하여 위 목적물 자체의 하자(파손, 수량불일치 등)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위 매각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실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태형 기획경영지원부 익산시 석암로 92길 51, 전화 063832-8500, 팩스 063832-8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회생채무자(주)태형의 관리인 유병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